

“人材는 지구촌 어디서든 찾아오죠”

헤드헌터 업체 차린 전·현직 외교관 아들들

전·현직 외교관 아들들이 독특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재를 필요한 기업에 소개하는 헤드헌터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잠원동 리엔파트너스(Lee & Partners)의 대표 이진우(33)씨와 강준구(36)·이진현(29)·박종서(34)씨 등이 주인공.

이진우 사장은 주 러시아 대사 이재춘(60)씨의 장남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컨설턴트 이진현씨와는 형제간이다.

강준구 이사는 1987년 11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아내와 함께 숨진 전 이라크 대사 강석재씨의 장남이다. 이 회사 파리 사무소를 맡고 있는 박종서씨는 94년 시모노페키(下関) 총영사를 마지막으로 외교관 생활을 접고 사업을 하고 있는 박문규(64)씨의 아들이다.

강준구 이사는 부친의 근무지를 따라 미국에서 5년, 이탈리아에서 3년, 대만에서 4년, 독일에서 2년, 사우디아라비아

에서 2년 등 총 7개국에서 20년의 외국 생활을 했다. 덕분에 영어와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이진우·진현 형제와 박종서씨도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해 영어를 잘하고 외국인들을 많이 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항공의 기획실·비서실 등에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지난해 4월 의기투합해 다니던 회사를 떠나 헤드헌터 업계에 뛰어 들었다.

李사장은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국내의 기업들이 유능한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등 인력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헤드헌터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李사장과 동료들은 오랜 해외생활에서 알게 된 국내외 인사에게서 적잖은 인력알선 의뢰를 받았다. 또 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사귄 외국인 친구 가운데 외국 기업의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강준구 이사, 이진우 사장, 앞줄 왼쪽이 이진현 과장.

국내 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

리엔파트너스는 매킨지컨설팅과 이세키 폴리테크(일본) 등의 외국 기업에 인재를 소개하고 네덜란드항공(KLM)의 채용 업무를 대행하는 등 지난 1년동안 총 40개 회사에 90여명을 소개했다. 국내 1백여 헤드헌터 업체 가운데 한해에 1백명 이상

을 소개하는 업체가 열군데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리엔파트너스의 성장은 꽤 빠른 편이다.

李사장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인도 벵골로 벤처단지와 러시아의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국내 벤처기업에 소개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A genuine partner for your succe.